

TV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0 채널A 아침뉴스	50 인간극장		1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잘났어 정말>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10 레드나인 스페셜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두 여자의 방>
9 4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40 시사특급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빨간자전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40 뉴스와이드	00 러브 인 아시아(재) 55 바른말 고운말(재)	10 KBS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월화드라마 <굿 닥터>(재)	00 브리보 멋진 인생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0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TV속의 TV 20 MBC 네트워킹 특선 <이예의 길>	00 SBS12뉴스 30 일일드라마 <웃남이 주의보>(재)
1 10 토티링평(재)	00 KBS뉴스 10 문/화/산/책 포플러(재)	10 2013 모스크바 세계육상선수권 <남 100m 결승>(재)	10 문화콘서트 난장 스페셜 <이예의 길>	00 SBS 뉴스 10 네트워킹 현장 고향이 보인다
2 20 직언직실	00 콘서트 필2(재) 40 남도지오그래픽(재)		00 MBC 3시 뉴스 10 키즈 사이언스 베스트	10 우리아이가가라졌어(재)
3 30 레드나인	00 KBS 오늘의 경제 10 여름방학 특선 알고리즘 KBS 파노라마 <함반도 아성은 살아있다> (재)	00 최강합체 익스마스터(재) 30 TV유치원	00 폭?퓹! 키즈스쿨 30 키즈 CSI 과학수시대	00 언넬 지두아2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4 00 뉴스현장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뽀뽀뽀 뽀뽀 2 30 인간극장 스페셜 <남태평양의 그 남자>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5 00 이예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우기	45 일일시트콤 <일말의 순정>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웃남이 주의보>
6 30 그때 그 사람	25 일일연속극 <자서전 연감>	02 생생 정보통 플러스 50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특별기획 <구암 허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7 40 채널 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00 월화드라마 제1편 <독일로 간 김춘>	00 월화특별기획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	00 SBS 대기획 <황금의 제국>
8 00 명랑해결단	30 KBS 뉴스라인	10 대국민 토크쇼 <인생하세요>	20 공감다큐 <그 곳>	20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9 10 이영돈PD 막걸리 X파일(재) ①:20 모큐드라마 <싸인>(재)	00 KBS 글로벌 24 40 소프초 하이리이트 10 KBS 뉴스 10 10 네트워킹 문화특선 이한철의 울담유지(재)	30 2013 모스크바 세계육상선수권 <여 100m 결승>	20 MBC 뉴스 24 40 소프초 다이아리 55 MBC 가요베스트	40 나이트 라인 ①:10 SBS골프

# “인해처럼 강한 엄마 인생의 롤모델이죠”

수애, 영화 '갯기'서 모성애 연기 도전

아이와 안고 달리고 또 달린다. 전염병에 걸린 아이를 구하려고 동료에게 거짓말도 밥먹듯 한다. 여의사이자 억척 엄마, 배우 수애가 도전장을 내민 영화 '갯기'에서 그녀가 맡은 인혜의 모습이다.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뛰는 장면이 좋아했죠. 저뿐만 아니라 나머지 스태프들도 제가 될 때 같이 뛰어줬어요. 일부는 소리도 지르면서 재밌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덜 외로웠던 것 같아요.”

최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수애는 어깨에 힘을 뺀 듯 예전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주변으로부터 '밝아졌다'는 말도 요즘 부족 많이 듣는다고 한다. 스스로도 “좀 더 풀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

변화에 대한 욕망이 꿈틀때 영화 '갯기'가 찾아왔다. 신종바이러스가 도시를 휩쓸면서 드러나는 인간의 추악함과 재난에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주인공 인혜는 그동안 연기해왔던 캐릭터와는 사뭇 달랐다. 깊은 감정 속에 빠져 허덕이는 멜로의 여주인공(그해 여류)도, 엄격한 중모를 지닌 황후(불꽃처럼 나비처럼)도, 병사들을 위로하는 가수(님은 먼곳에)도 아니었다. 초반에는 로맨틱코미디의 여주인공처럼 새침하다가 재난이 닥치자 딸을 위해 물불을 안 가리는 '엄마'가 되어야 했던 그.

“로맨틱코미디 여주인공 역할을 오랜만에 했어요. '9월말 투아웃' 이후 거의 처음이니까~재난영화는 배우와 스태프의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이번에는 뭔가 하나 해보자는 분위기가 강했고, 협업을 위해 노력했어요.”

유해진, 장혁 등 주연 배우들과의 호흡은 처음부터 좋았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평소와는 달리 희식 때 배 세 시까지 술자리를 지켰고, 밤샘 촬영이 끝나면 인근 편의점에



<수애>

가서 동료와 맥주 한 잔을 마시며 피곤을 달래기도 했다.

“영화를 정말 재밌게 찍었어요. 과정은 정말 만족해요. 제일 재미있게 찍은 것 같아요. 물론, 흥행 성적이 문제죠.(웃음) 오빠들이 심적으로 편하게 해주니 영화를 찍으며 조금 망가져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재난 영화를 찍고 나니 “여전사 같은 강한 캐릭터에도 도전하고 싶다”며 웃는 수애.

“가족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무의식적으로 강한 여성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강한 엄마'가 저의 롤모델이에요. 그래서 강한 역할을 택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찍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로맨틱 코미디? 제 느슨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웃음)

“학교 2로 데뷔했으니 배우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14년이 흘렀다.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다. 그렇게 문화적, 생리적 30대가 찾아왔다. 급격한 세월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지만, 눈에 띄게 달라진 것도 있다.

“사람들이 잘 재미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좀 바꿔놓고 싶어요. 하루이름에 될 것 같진 않고 조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지금은 조금 딱딱하잖아요.”(웃음) /연합뉴스

## '슈퍼스타K5' 첫회 시청률 4.9% ... 인기 여전

'박시환·쓰레기스트·미스터파파' 등 네티즌 관심 폭발

케이를 채널 넷의 대표적인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의 새 시즌이 시청률 4.9%로 시작했다.

10일 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방송된 '슈퍼스타K5' 1화는 평균 시청률 4.9%, 최고 시청률 6.0% (닐슨 코리아·전국 케이블 가입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넷에는 특히 주 시청층인 15~34세 남녀 시청률에서는 지상파를 포함해 동시간대 1위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그동안 '슈퍼스타K'의 모든 시즌에 지원했지만 처음으로 3차 예선에 합격한 정비사 박시환 씨, 헤비메탈 밴드 '쓰레기스트', 전문 세션들로 구성된 '미스터파파' 등이 출연해 주목받았다.

한편 같은 날 방송된 tvN '꽃보다 할배' 6화는 평균 시청률 6.65%로 3주째 자체 시청률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연합뉴스



EBS		
06:00 건강강 아침	09:30 캐니발	13:40 초등 5년 여름방학생활
06:10 한국기행 <무안반도>	09:40 틴가라 이야기	14:05 EBS 스페이스 공감1
06:30 나의 성공비결	09:55 지구를 지켜라	15:00 꼬마기사 마미코
07:00 곤	10:10 세계대미팅	15:10 콩콩짜짜 라라
07:15 미앤미로봇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꼬마거북 크랭클린
07:30 마야의 모험	(영양 특특 정성 들뜬 음악표 간식 - 두부 크림 컵케이크)	15:45 마야의 모험
07:45 뽀뽀뽀 뽀로로	11:20 부모	16:00 뽀뽀뽀 유치원 1~2(재)
08:00 뽀뽀뽀 유치원 1~2	(특별 여행을 떠나라 사랑의 처방전)	16:20 캐니발
08:20 놀이터 구조대, 뽀뽀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뽀뽀뽀 뽀로로(재)
08:35 로보가 풀리	12:10 EBS 디큐프라이	16:45 숲 속 친구 피파올라(재)
08:50 숲 속 친구 피파올라	(한국어 강)	17:00 방귀대장 뽀뽀(재)
09:00 방귀대장 뽀뽀	13:00 초등 1년 여름방학생활	17:10 로보가 풀리(재)
09:15 코로롱2	13:20 초등 3년 여름방학생활	17:25 놀이터 구조대, 뽀뽀(재)
		17:40 생방송 특목 보리나니 1~4

  

EBS플러스1		
00:00 기본과 특별한	<일반사회> 11:40	<강화의 윤리와 사상>
00:50 내신 6강	<수학(상)> 1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01:40	<지리> 13:00	탈선론 (박복의 사회문화)
02:30 포스	<회법과 작문> 14:00	인터뷰 수능
03:20	<독서와 문법>	<독서·문법·회법·작문(A)>
04:10	<수학 I A형> 15:00	<독서·문법·회법·작문(B)>
05:00	<수학 I B형> 16:00	기출플러스 <수학II&적통&기법>
05:50	<미적분과 통계기본> 17:00	인터뷰 수능 <독해(B)>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18:00 EBS 수능완성	<국어(A형)>
07:30	<영어특강의 기본(1)> 19:00	<영어(B형)>
08:20 틴스런	<Basic Grammar> 20:00	<영어(A형)>
09:10	<법과 정치> 21:00	<영어(B형)>
10:00	<동아시아사> 22:00	<올리 I>
10:50	<경제> 23:00	<적분과 통계>
	23:50 지식채널e	

  

EBS플러스2		
07:00 공인 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50 사이언스 드라마(미래를 보는 소년)	16:20 초등 5년 여름방학생활
07:30 EBS 생활영어	16:20 초등 1년 여름방학생활	16:40 초등 3년 여름방학생활
08:00 경찰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40 초등 5년 여름방학생활	17:00 초등 5년 여름방학생활
08:30 주책 권리사 시험대비 강좌	17:00 초등 5년 여름방학생활	17:20 초등 5년 여름방학생활
09:10 중학 1학년	<국어①(상)> 17:20	초등 5년 여름방학생활
09:50	<수학①(상)> 18:00	중학 1학년 <수학>
10:30	<수학①(하)> 18:40	<사회>
11:10	<역사①> 19:20	초등 수학-매스메이킹
11:50 중학 2학년	<영어②-2> 19:50	매출매출 미술상사
12:30	<문학②> 20:00	나의 첫 번째 영어쓰기 노트
13:10 중학 @포스 영문법 ①	20:40	초급 한국어능력 검정 시험
13:50 중학 @포스 영문법 ②	21:20	등문선공 <수학①(하)>
14:30 중학 @포스 영문법 ③	22:00	홍3 퍼펙트 체크업 <수학 3-2>
15:10 생활이 생생!	22:40	중학 3학년 <영어 3-2>
15:20 한화오디오투(어린이 손지방법)	23:20	<문학3>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2일(음 7월 6일 庚戌)
<b>子</b> 36년생 번거로운 일이 보인다. 48년생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는 법이다. 60년생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72년생 지나친 생각이 오관을 야기할 수다. 84년생 불련함의 해소는 빠를수록 좋다. 행운의 숫자 : 96, 19	<b>午</b> 42년생 초심을 잃지 말고 일관 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54년생 기본적인 상황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겠다. 66년생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발생 하리라. 78년생 재고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50
<b>丑</b> 37년생 새로운 것이 항상 좋지만은 않다. 49년생 이해득실만으로 결정하지 말라. 61년생 알면서도 속아주게 될 것이니라. 73년생 변경 여부로 고민하리라. 85년생 공물여 왔던 일이 타인에게 넘어갈 수다. 행운의 숫자 : 77, 93	<b>未</b> 43년생 우회적인 방법보다 직접적인 실행이 더 낫다. 55년생 취약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67년생 관공의 차이로 인해서 섬세해진다. 79년생 결합 수 있는 일이나 다기능의 선택이 용이하다. 행운의 숫자 : 62, 78
<b>寅</b> 38년생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 결실을 보리라. 50년생 겨우 위기 모면은 할 수 있겠다. 62년생 의문점이 보인다던 반드시 깨야야 한다. 74년생 소기의 성과에 따른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8, 45	<b>申</b> 44년생 지금 관리해 두지 않는다면 상당한 손실이 뒤따를 수 있다. 56년생 가장 근본적인 원인부터 분석해 봐야 할 시점이다. 68년생 보람을 느낄 것이다. 80년생 주변인들로부터 호평을 들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5, 04
<b>卯</b> 39년생 순간의 인색을 초월해야 참된 관계가 성립된다. 51년생 똑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태도에 따른 차이가 크다. 63년생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합리적으로 작용하리라. 75년생 주변을 꼼꼼히 돌아보라. 행운의 숫자 : 10, 74	<b>酉</b> 45년생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일이다. 57년생 길잡이와 함께 하도록 하자. 69년생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음을 알자라. 81년생 상대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려 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8, 26
<b>辰</b> 40년생 씩 좋은 결과라고 보기에 힘들겠다. 52년생 신기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날이다. 64년생 이익이 있기는 하나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76년생 아예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편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8, 29	<b>戌</b> 46년생 순수한 사람만이 진실을 믿는 법이다. 58년생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70년생 저절로 들어오게 되어 있느니라. 82년생 사소한 소란에 개의치 말고 큰일을 도모함이 좋다. 행운의 숫자 : 56, 65
<b>巳</b> 41년생 형편과 사정을 잘 따져봐야 할 일이다. 53년생 국지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것에 관심이 필요하다. 65년생 필히 점점을 해보는 것이 좋으리라. 77년생 경험과 지혜를 빌린다면 수월하게 처리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9, 01	<b>亥</b> 47년생 목욕히 정도를 걸러라. 59년생 주관에 사로잡힌다면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71년생 도모하고자 하면 이루어지는 날이다. 83년생 어림잡아서 대충하다가는 큰일 나게 되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5, 06

### TV 하이라이트

**한독 수교 130주년 가요무대**

독일특집 가요무대 제1편 '독일로 간 청춘' (KBS 1TV·밤 10시) = 한독 수교 130주년, 근로자(광부, 간호사) 파독 50주년을 맞아 KBS1 '가요무대'가 '가요무대 독일 공연'을 개최한다. 가요무대는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루르 공업지대의 중심부에 위치한 루르 콩그레스 보룸(Ruhr Congress Bochum·독일 보룸시 소재)에서 현지시간 지난 3일 오후 4시에 막을 올렸다.

김영민, 장사익, 현철, 송대만, 태진아, 설운도, 김상희, 현숙, 주현미 등 국내 최정상 가수 15명과 KBS 관현악단·합창단·무용단 등으로 구성된 100여명의 공연 제작팀, 독일 현지 동포들로 구성된 100명의 어머니 합창단과 함께하는 무대를 장식한다.

오는 17일에는 제2편 '독일이러리랑 반세기'가 방송된다.

**'키보이스' 유행기 인생이야기**

그때 그 사람(채널A TV·오후 8시30분) = 1960년대 기타와 드럼, 장발, 세련된 무대 매너 등 '대한민국의 비틀즈'를 표방하며 혜성같이 등장한 대한민국 1세대 록그룹 '키보이스'.

밴드의 리더인 유행기는 무대 위에서 타고난 끼와 재능을 발휘하며 미8군 공연장과 명동 라이브클럽을 휩쓴 스타였다.

한때 '천재 가수 유행기'의 오빠라는 그늘에 가려지기도 했지만 '별이 빛나는 밤에', '장밋빛 스카프', '친구야',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전설적인 뮤지션으로 성장한다. 유행기는 인생의 황금기에 틀어박힌 폐결핵으로 자취를 감춰 버렸다.

그는 과연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힘의 원천, 남해의 갯장어**

요리비전(EBS TV·오후 8시20분) = 장마가 끝나면 더욱 깊은 맛을 낸다는 갯장어. 유난히 길었던 올해의 장맛비를 흠뻑 마신 갯장어의 맛이 금금해진다.

매일 먹어도 또 먹고 싶어진다 바다의 귀족, 갯장어를 만나러 남해의 여름 바다로 떠나본다.

우리나라에서 즐겨 먹기 시작한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갯장어는 일본인들에게 오래 전부터 최고의 보양식으로 대접받아 왔다. 뭉دت지 밥서 무는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체력을 가진 갯장어는 무더위에 지친 이들에게 기운을 북돋워 줄 힘의 원천이다.

잔뼈가 많아 손질에 손이 많이 가서 더욱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는 갯장어 요리. 일본의 '갯장어 유비키'와 비슷한 듯 다른 우리의 '갯장어 데침회'를 만나본다.